

NEWS LETTER

NEWS LETTER Spring. 2010.No.09

SNU New Music Series | Studio 2021 | 2010 Spring Season • 2010 Summer Academy

Studio 2021

Guest Composer's Week



Performer's Studio I



Performer's Studio II



Guest Composer's Week | 박영희

Lecture

〈박영희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동서양 문학과 종교적 영성에 관하여〉

5월 3일(월)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49동

Composition Lessons

5월 4일(화)/6일(목)/7일(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Performer's Studio I | E-Mex Ensemble

Lecture Concert

〈New Sounds, New Techniques, New Possibilities of Composition〉

5월 18일(화)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55동 203호

Performer's Studio II | MD7 Ensemble

Lecture Concert

〈Four Perspectives of Seven Musicians〉

5월 27일(목)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49동

Nenad Firšt / Sukhi Kang / Pavel Mihelčič / Lojze Lebič

Summer Academy With SNU Composers

Workshop & Lesson

6월 7일(월)~12일(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ncert

6월 15일(화)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49동

Magnus Lindberg / Chris Paul Harman / Luciano Berio / Garrett Byrnes / Zack Browning / 학생선정작품 2곡

Composition Lessons

6월 16일(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Lecture Concert

6월 17일(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55동 203호

Studio 2021

Music Director's Notes

이신우(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Studio 2021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동주최 《페스티벌 아첸토 Festival 'Accento'》 2009

지난 2009년 가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스튜디오2021》과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최한 《페스티벌 아첸토》가 9월 18일과 19일에 부천시 민회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관현악전과 실내악전으로 열렸다. 교육기관의 인프라와 교향악단의 연주력이 결합되어 문을 연 한국의 첫 음악제인 《페스티벌 아첸토》에 《스튜디오2021》의 음악감독으로 거는 기대감이 무척 크다. 《페스티벌 아첸토》는 특별히 작곡가 고우와 김승림을 공동 프로그램 디렉터로 기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방송 프로듀서와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30대의 신진들로서, 관현악전을 지휘한 지휘자 최희준과 더불어 이번 음악제에 새롭고 신선한 레파토리와 아카데미하고 디테일한 지휘로 첫 공연에 젊고 활력 있는 참신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번 공연에는 독일의 클라리네티스트 에두아르트 브룬너(Eduard Brunner)를 초청하여, 브룬너가 연주할 경우에만 오보에를 클라리넷으로 대체 하도록 작곡가에 의해 허용된 루토슬라브스키(Witold Lutosławski)의 〈클라리넷과 하프, 13개의 현악기와 타악기를 위한 '이중협주곡'〉과 호소카와(Toshio Hosokawa)의 〈클라리넷과 현악 오케스트라, 타악기를 위한 '메타 모르포시스'〉를 연주하였고 락헨만(Helmut Lachenmann)과 리게티(György Ligeti)의 클라리넷 작품들을 가지고 렉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페스티벌 아첸토》에서는 매 해마다 해외의 저명한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새롭고도 진지하며 동시에 학문적, 예술적 깊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음악제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실내악 부문에서 문석민의 '프리즈 메틱 프렉션'을 선정한 것과 달리 관현악 부문에서 SNU 젊은 작곡가 공모작을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 제출된 작품 중 미완성작이라 선정하지 못했던 신동훈과 김택수의 관현악 작품이 지난 해 《스페인 국제작곡콩쿨》

(International Composition Contest National Auditorium of Music Spain 2009)과 《윤이상국제작곡콩쿨》에서 1위와 2위에 입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SNU 젊은 작곡가들의 우수한 관현악 작품들이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이 출품되어 음악제를 빛낼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봄시즌 《스튜디오2021》

이번 2010년 봄시즌에는 독일과 슬로베니아의 앙상블, 〈E-Max〉와 〈MD7〉의 렉처콘서트가 기획되었다. 샬리노(Salvatore Sciarrino), 락헨만 등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고 SNU 젊은 작곡가의 작품 중 1곡을 선정하여 연주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튜디오2021》에서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저명한 많은 작곡가들을 초청하여 렉처와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여 왔다.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탄둔(Tan Dun), 마이구아쉬카(Mesias Maiguashuca)를 비롯하여 피니시(Michael Finnissy), 베인브리지(Simon Bainbridge), 브레즈닉(Martin Bresnick)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작곡가들이 초대되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를 〈초청작곡가주간〉(Guest Composer's Week)이라 명칭하고 한 주 동안 렉처와 작곡 마스터클래스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이 코너의 첫 작곡가로 재독 작곡가 박영희를 초청하게 된 것을 한국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데트몰트 음대의 작곡 교수로서, 또한 작곡가로서,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축적된 그의 오랜 경험과 관록(貫祿)이 서울대학의 젊은 작곡가들에게 미칠 예술적 자극과 영향

에 대해 기대가 크다. 그는 그의 음악에 나타난 동, 서양 철학과 종교적 영성을 중심으로 그의 음악세계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6월에는 여름 아카데미가 기획되어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벤자민 성(Benjamin Sung), 김연수와 재미 피아니스트 장지혜가 학생 연주자들과 더불어 폴 하만(Chris Paul Harman)의 피아노 트리오와 린드버그(Magnus Lindberg)의 피아노 5중주, 베리오(Luciano Berio)의 바이올린 이중주 및 SNU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오픈 리허설과 워크숍 및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리노이 주립대학 작곡과 교수인 잭 브라우닝(Zack Browning)의 렉처(주제: Music and Numbers)와 작곡 마스터클래스가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의 《스튜디오2021》

《스튜디오2021》을 통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외국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의 수가 매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많은 외국의 작곡교수들이 《스튜디오 2021》을 방문하여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의 뛰어난 재능과 아이디어의 신선함 및 기술적 숙련도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외국대학들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단순히 외국의 음악인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 교류 하에 한국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외국의 대학에서 연주되고 학생들 스스로 그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을 당당히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이제 해외의 저명한 음악인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자 하는 교육의 터전이며 우리의 젊은 작곡가들은 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우수한 재원들이다.

《스튜디오2021》은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활발히 국제무대로 진출하여 그들의 작품을 세계 속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특별한 한국 현대음악의 장(場)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9 Autumn Season Review

《페스티벌 아첸토 Festival 'Accento'》 2009

고 우 (페스티벌 아첸토 프로그램 디렉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스튜디오2021》이 공동주최한 《페스티벌 아첸토》의 첫 무대가 작년 9월 부천과 서울에서 열렸다. 전문 연주단체와 교육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페스티벌 아첸토》는 올 가을 두 번째 시리즈를 앞두고 있으며, 부천시와 서울대 음대의 협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CROSS CUT! 횡단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 아첸토》의 첫 번째 시리즈는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경계 선상에 위치하는 현대음악 작품들에 초점을 두었다. 서양에서 비롯된 산업사회가 전 세계적 표준이 된 이래 비서구권 사회는 ‘전통’과 ‘세계’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늘날 서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이전과 달리 특정한 시대양식이 꾸준히 발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가치들이 복잡하게 혼재돼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국과 서구의 대립되는 양식을 융합하려고 한 동아시아와 아랍의 작곡가, 서구사회에 속하나 외곽에서 중심을 겨냥한 남북 아메리카의 작곡가, 서구 전통의 중심에서 역사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럽의 작곡가, 그리고 이들의 변화무쌍한 작품들. 《페스티벌 아첸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음악현상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여 음악제가 단순히 작품들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강한 주제적 응집력으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원했다.

실생활과 분리되고 그 자체로서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모더니즘 예술의 숙명상 지난 세기의 많은 현대음악제들은 우선 작곡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작곡가 집단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역동성이 예술의 변화를 압도하는 이 시대에 모더니즘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는 《페스티벌 아첸토》가 주최 측의 한정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기보다는 현대음악의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최대한 모으고 종합적 시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음악제 매 회의 특정한 주제들은 작곡가와 연주자뿐 아니라 일반 청중들까지 동시대 음악현상의 다양한 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간 진행된 《페스티벌 아첸토》 2009의 첫 날은 관현악 연주회였다. 중국의 쑹롱(Zhou Long), 일본의 호소카와(Toshio Hosokawa), 한국의 정태봉과 함께 폴란드의 루토슬라프스키(Witold Lutoslawski)의 작품이 연주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각 작곡가들이 속한 사회의 좌표

와 예술가 개인의 표현이 서로 접점을 찾는 과정이 드러나 흥미로웠다. 산업화에 따라 음악도 서구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아시아 작곡가들과 유럽의 주변부에서 중심부와 대결하는 동유럽 작곡가들에게 사회적 조건은 개인의 성향이 꽃피는데 있어 하나의 도전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쑹롱의 관현악을 위한 〈당시(唐詩)〉는 조성적인 구조와 현대적인 음향이 절충되는 가운데 전통음악의 직접적인 인용이 두드러지는 작품이었다. 여기에는 1980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세계화의 길을 걸은 중국사회의 요청이 분명히 담겨 있으나, 론도와 스케르초 등 서구의 형식과 관현악법에 능통한 쑹롱의 개성은 전통적인 요소를 유려하게 포용하며 상투적인 민요조의 음악을 피하였다. 실용적인 음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산주의 사회와 거대한 대중소비 사회인 미국에서 공부한 그는 아카데미한 어법과 지역성 및 현대성을 대중성과 적절히 혼합시키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호소카와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보다 세분화된 사회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작품이었다. 심화된 자본주의 체제인 일본은 소비주제인 개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거친 사회구조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 집단을 낳을 수 있는데, 이들은 대중성과 차별되는 어법을 통해 학교와 애호가 층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지켜 나간다. 일본에서 성장하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된 서유럽에서 유학한 호소카와는 쑹롱이 누구나 알기 쉬운 전통요소의 표면을 활용한 것과 달리 전통음악 구조가 지닌 내적 원리를 활용하여 서구 예술음악과 만나고 있었다. 중국만큼 대중성의 기반이 없고 일본만큼 예술가 층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작곡가들은 양자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무조성의 융합과 전통 민요의 인용이 강하게 충돌하는 정태봉의 교향시 〈한국〉은 이러한 사회성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었다.

아시아 작곡가들이 지역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예술성을 고민했다면, 루토슬라프스키는 역사성의 탐구까지 결합된 보다 다층적인 작품을 보여주었다. 같은 서구인이면서도 그 중심부에는 거리가 있는 동유럽 작곡가답게 루토슬라프스키의 〈이중협주곡〉에는 폴란드 전통요소가 없지는 않았으나, 작품의 핵심은 이중협주곡이라는 구조 자체와 여기서 비롯한 시대적 구분의 해체였다. 바로크 이중협주곡 양식과 18세기 고전음악을

연상시키는 간결한 편성은 현대적인 음향과 결합하여 구태의연한 모더니즘과 차별되는 신선한 음악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여기에 민속음악에서 비롯된 악동적인 리듬, 멀리 멀리 에까지 이어지는 동유럽 특유의 애수와 아이러니까지 더해져 서유럽 아방가르드의 핵심인 독일과 프랑스 등의 정신적 분열과는 다른 힘찬 활력이 작품 안에 가득하였다.

비빔 일정상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현악 연주회에서 보여준 〈부천필〉의 역량은 놀라운 것이었다. 평소 고전음악에서 보여준 그들의 탄탄한 기본기는 각 작품을 음향형어리로 적당히 뭉개는 것이 아닌 소리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살아나게 하는데서 빛을 발했다. 이러한 정확성은 음표 간 구조적인 짜임새를 분명하게 하여 작품들의 유기적인 구조를 분명히 드러냈으며 여기에는 지휘를 맡은 최희준도 큰 역할을 했다. 오페라에 능한 지휘자답게 그는 악기간의 섬세한 대화를 통한 정교한 앙상블을 이끌었으며, 에두아르드 브룬너의 클라리넷 협연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호소력 짙은 현대음악 연주를 들려주었다.

《페스티벌 아헨토》의 두 번째 날인 실내악 연주회는 관현악 연주회보다 좀 더 범위가 확장되어 더욱 다양한 지역과 경계선상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윤이상, 문석민과 더불어 중동 요르단 출신의 사에드 하다드(Saed Haddad)의 작품이 연주되었고, 서구사회 내에서는 또 하나의 미지의 경계지역인 남아메리카 태생의 카겔 외에 중심부에 속하는 독일의 라이만(Aridert Reimann)와 비드만(Joerg Widmann), 브라이텐펠트(Roland Breitenfeld) 및 미국의 카터(Eliot Carter)의 작품이 어우러져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의 음악현상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현대음악의 출발 선상에 위치하는 윤이상과 이번 음악제의 젊은 작곡가 공모 당선작인 문석민 사이의 간극은 그 시간만큼이나 양식적으로도 다른 면을 보이고 있었다. 윤이상의 클라리넷 독주곡 〈피리〉는 한국 전통음악의 구조적인 면을 1960년대 서양 아방가르드 음악과 결합한 작품이다. 식민지배와 한반도 분단을 경험한 그에게 민족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절실한 주제였다. 반면 한국사회가 서구와 동시대적으로 기술적 발전을 겪는 현실점에 있어 문석민은 지역적 문제에서 자유로이 탈피하여 좀 더 보편적인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현악사중주는 다양한 소리의 짜임새를 명료하게 조합하는 세련된 감각을 보였지만 이를 큰 틀에서 전개하는 구조적인 면에서 약간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과거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의 확립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역의 전통에 기반을 둔 요소들은 작곡가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아시아 작곡가인 하마드의 삼중주는 아랍전통뿐 아니라 유대음악의 전통이 가미된 복합적인 형태로 현대적인 음향과 결합한 작품이었는데 다양한 문화가 교차한 지중해 문명권의 유려함이 돋보였다.

서구사회의 제국주의적 확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를 말살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이식을 이루기도 한다. 아메리카 대륙을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토착 원주민의 잔영이 혼합된 남아메리카의 경우 서구문화의 중심부와는 상당히 다른 독자성을 보이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겔(Maurizio Kagel)은 여러 문화적 힘이 축적된 저력을 바탕으로 서양음악의 최종심에 도전장을 내민 작곡가이다.

그의 〈피콜로 현악사중주를 위한 '판'〉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아한 뉘앙스를 오페라 마술 피리의 거친 방랑자 파파게노와 충돌시켜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 속에 풍자적으로 그려내었다. 한편 훨씬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백인국가를 이루어 냈던 북아메리카의 경우 경제적인 번영과 더불어 서구문명의 중심부로 빠르게 자리 잡게 되는데, 지난 세기 초 이 지역이 서유럽의 문화를 수입하며 고민했던 흔적은 작곡가 카터의 작품 안에 잘 표출되고 있다. 이제 100세를 넘긴 이 노작곡가의 근작 〈모자이크〉에는 지난 100년간 미국인이 뒤쫓았던 유럽의 신고전주의와 유럽음악의 그림자가 모두 깃들여 있으며, 이는 카겔식의 도전과 전복보다는 보다 주류적 관점의 여유 있는 회상으로 구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은 서양음악의 전통과 헤게모니의 중심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실례(實例)들이었다. 후기 낭만파로부터 이어진 무조성을 계승하는 라이만의 클라리넷 독주곡이 보다 전통적인 독일 현대음악의 관점이었다면, 비드만과 브라이텐펠트는 외부의 영향으로 더욱 풍부함을 갖추게 된 중심부의 음악을 보여주었다. 재즈의 리듬감이 진부하지 않게 구조적으로 소화된 비드만의 클라리넷 독주곡은 지금 독일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곡가 중 한 명인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작품이었다. 한국의 고전시기에서 영감을 받은 시를 바탕으로 한 브라이텐펠트의 〈에코-시조〉는 한국어와 독일어가 뒤섞이는 가운데 음성과 악기의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컴퓨터 전자음악이 주분야인 그의 다른 작품도 《페스티벌 아헨토》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실내악 연주회는 본래 〈부천필〉과 서울대 학생들이 반반씩 나누어 연주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촉박한 준비기간으로 인해 이번에는 대부분 〈부천필〉 단원들이 맡았다. 관현악 연주에 이은 실내악 연주에의 부담은 카겔 등의 작품에서 날카로운 풍자가 부족한 면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부천필〉의 연주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카터 작품의 지휘를 맡은 김승림은 하프가 포함된 앙상블의 협주곡적인 구조를 잘 살려냈으며, 그가 맡고 있는 서울대의 현대음악 연주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우수한 앙상블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브룬너의 연주는 그가 절친했던 윤이상의 작품을 포함하여 작곡가와 학생, 일반 청중 모두에게 현대 클라리넷 음악의 다양한 면모를 전달하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 다만 부족한 시간관계상 초연작이 학생작품 1개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주었으며, 타악기 등 기본적인 연주 인프라의 구축을 비롯해 작품위축과 미디어 매체의 활용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앞으로 꼭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지역 간 통합과 매체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21세기. 예술분야에서도 장르 간 융합을 필두로 새로운 분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음악 내에서도 조차 연주와 작곡, 전문가 층과 대중간의 이분법이 고착된 한계를 넘어 《페스티벌 아헨토》가 사회로 향한 열린 시각과 역사를 꿰뚫는 거시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음악제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2009년 10월 13일 가을 날씨답지 않게 굉장히 춥고 바람 불던 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현대음악시리즈 《스튜디오 2001》이 기획한 《Composer's Studio I》이 개최되었다. 이 날의 프로그램으로 이인식(1963-)의 'wooland'라는 부제를 가진 작품 (String Quartet No. 4)와 이흥석(1964-)의 '...선들은 시간 속을 방향 한다...'라는 긴 부제를 가진 (바이올린, B♭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3중주')는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주되었다. 이 연주회의 리뷰를 부탁받은 나는 작품이 연주되는 동안 이 작품들의 시간을 잡으려고 그리고 '무엇인가'로 규정하려고 노력하며 음악회장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강박감은 나로 하여금 연주회 당일 한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이 두 작품의 청취 체험이 어떤 줄로 자꾸 묶여 연상되는 것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그 연주회 장소에서 음악이라는 예술이 주는 객관적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이루고 있는 음향적 재료를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말해 '시간 예술'이라는 음악에서 '예술'을 느끼기 보다는 '시간'을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다. 리뷰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시작된 '시간'을 잡아보려는 노력은 첫 번째 작품의 연주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두 번째 작품의 작품 해석 후 시작된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점점 그 끝을 잃어가고 있었다. 리뷰에 대한 부담감은 순간적으로 내가 놓쳐 버린 '시간'을 다시 잡아보고 들여다보려고 하면서 그날 오전 나의 강의 주제였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두 작품을 묶어 설명하려는 나를 발견하게 했다. 또 하나 나는 연주된 두 작품들 속에서 시간의 정체성을 느꼈다. 마치 유럽의 미로 정원에 있는 것과 같은...



〈유럽의 미로 정원〉

음악의 다원화로 설명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사고의 연장과 반 모더니즘의 두 경향으로 크게 나뉜다. 작곡가 이흥석의 (3중주) '...선들은 시간 속을 방향 한다...'를 들으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모더니즘 사고의 연장이라는 음악적 인상을 받았다면, 작곡가 이인식의 〈현악사중주〉 'wooland'에서는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경계 허물기를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음악의 시간체험을 '감상'하는 청중으로서가 아니라, '이 작품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음악적 시간을 '분석'하려는 입장에서 얻은 이 두 가지 인식에 대해 연주회장을 벗어난 지금은 소리화된 시간 예술로서의 작품 분석이 아닌, 소리 없이 악보를 읽고 분석하면서 나의 이러한 판단을 재 확인해보고자 한다.

〈현악사중주〉 'wooland'는 시작음과 마지막음 그리고 페달포인트로 등장하는 음을 통해 볼 때 D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조성적 내용을 보인다. D라는 중심으로 단언할 수

있는 신조성적 내용은 곡의 진행 속에서 계속 증명된다. 우선 이 곡을 이루는 음악적 요소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과 그 단순한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이 이 곡이 중심음을 가진 신조성적 작품임을 뒷받침해 준다. 이 곡이 중심음을 D로 한다는 것은 마디 1-20의 첫 번째 부분(부분 I)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분 I의 중심적인 음악요소는 바로 두 음의 교대진행과 5도와 4도 도약진행이다(악보 1).

〈악보 1〉 〈현악사중주〉 'wooland' 서주에 제시된 중심적 음악요소

a: 마디 1-3

b: 마디 11-13

이 곡의 핵심적 동기는 부분 I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8분음표 8개로 이루어진 것이다(악보 2). 부분 II를 시작하는 마디 21부터 제1바이올린 성부에서 제시되는 이 동기는 반복과 변화 그리고 다른 성부에서의 모방진행을 통해 연속성을 갖게 된다. 동기는 3도 상행으로 동형진행을 통해 변화하고, 그 동기들은 최소 3번씩 반복한다. 또한 제1바이올린 성부에서 시작한 핵심동기가 3번 반복을 끝내는 지점(마디 24)에서 제2바이올린 성부는 마디 21부터 시작된 핵심동기를 모방한다. 이러한 진행은 비올라 성부와 첼로 성부로 펼쳐진다.

〈악보 2〉 〈현악사중주〉 'wooland' 마디 23-28

핵심동기의 반복, 이도 동형진행 그리고 모방기법을 통한 전개가 끝나가는 부분에서는 다시중심음 D가 페달포인트로 등장하면서 서주의 내용이 변주되며 연결된다(부분 III). 이 때 부분 I에서 피치카토로 첼로파트가 연주했던 5도와 4도 도약진행으로 이루어진 D-A-d 진행(악보 1 b, 참조)은 반복과 함께 아주 작은 변화를 수반한다. 옥타브를 5도와 4도로 분할한 음형은 이 곡의 중심음 D와 5도 위의 A음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음이 상행하여 마디 53부터는 반음계적 선율을 형성한다(악보 3). 이 반음계적 선율은 마디 59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하행한다.

(악보 3) 〈현악사중주〉 'woodland' 마디 47-58 첼로파트



마디 54에서 반음계적 상행음계 선율을 첼로 성부가 피치카토로 연주할 때, 제1바이올린 성부는 부분 II의 핵심동기를 연주하며 부분 I의 중심 음형과 음악적 혼합을 이룬다. 부분 I과 부분 II의 동시적 진행은 마디 67에서 변형된 내용을 제시한다. 부분 II의 8개의 8분음표로 이루어진 핵심동기($d^2 - e^2 - \sharp f^2 - d^2 - e^2 - \sharp f^2 - d^2 - e^2$, 악보 2 참조)와 3도 상행된 변형은 첫 음을 생략하여 $e^2 - \sharp f^2 - d^2 - e^2 - \sharp f^2 - d^2 - e^2$ 로 이루어진 음형을 연주한다. 위 · 아래 보조음을 가진 4개 음으로 이루어진 음형은 가운데 있는 음 e^2 를 중심축으로 반복의 대칭 구조를 형성한다. 한음의 생략이라는 최소의 변화는 핵심동기를 '정체된 시간'으로 묶어둔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부분 I의 옥타브를 분할하는 가운데 음의 생략과 당김음 리듬으로 깨진다(악보 4).

(악보 4) 〈현악사중주〉 'woodland' 마디 6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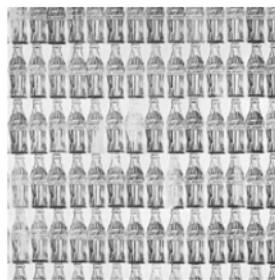


각 부분의 주요 음형 혼합이었던 부분 III 이후 마디 92 후반부터 마디 163까지(부분 IV)는 부분 I을 이루었던 2개의 주요 음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 두 음형은 변화를 꾀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 부분 IV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16분음표의 빠른 상행음형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이 음형은 단순한 음형의 반복, 아주 작은 변화로 인한 미궁으로 빠져드는 청자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악보 5) 〈현악사중주〉 'woodland' 마디 120-123



부분 IV를 지나 마디 164 이후는 부분 II와 부분 III에 대한 변형을 수반하는 반복이다. 전체 악곡의 주요 동기 세 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화는 극히 미세할 뿐만 아니라, 반복을 통해 그 변화에 대한 감각을 상실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으로 이 작품이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작품은 '대중에게 다가간' 작품이라 생각한다. 이 곡은 이전의 작품에 '수학적, 과학적, 문학적 내용을 음악에 담고자 하는 의도로 많은 메시지를 작품에 포함' 시키려고 했던 창작 스타일을 벗어난 작품으로 '청중들과의 교감'을 염두에 두었다고 연주회장에서 작곡가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또한 이러한 분석은 음악을 들으면서 '미니멀음악이구나!'라고 느낀 나의 주관적 시간체감과 일치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위홀의 그림이 연상되었다.



앤디 워홀

〈Green Coca-Cola Bottles〉 (1962)

100개가 넘는 푸른 코카 콜라병들은 사람들에게 첫 인상은 그냥 '많은 코카 콜라병'으로 인식된 후, 다시 보았을 때 병을 엮은 색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 마시고 난 빈병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그리면서 병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물체로 존재하도록 하였음을 알게 된다. "진지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다는 위홀의 이 그림에 대한 평가를 작곡가 이인식의 'woodland'에 적용해본다.

이홍석 작곡가의 작품 〈3중주〉 '...선들은 시간 속을 방향 한다...'는 연주회장에 들어서면서 받은 악보의 뒤에 첨부된 '극렬한 허무 위에 세운 모더니즘의 시 세계'를 펼쳤다고 평가되는 고트프리트 벤(Gottfried Benn, 1886-1956) ²⁾의 시 구절과 작품의 부분과의 연계를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표현주의' 예술사조의 음악적 표현 양식과 들려오는 연주가 마구 겹쳐지면서 이흥석이라는 작곡가의 작품 청취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작품을 분석하면서 연주회장에서의 이러한 혼돈을 풀기 전에 작곡가의 프로그램 노트를 읽어본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보이는 '시간'이라는 단어, 연주전에 이루어진 설명에서의 '기억' 그리고 '시간의 중첩'과 같은 단어는 프로그램 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³⁾ 리뷰를 쓰기 위해 나는 연주장에서 경험한 '음악적 현상의 시간'을 버리고 악보로 기보되어 '고정된 시간'을 분석하면서 '규칙적인 듯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리듬의 불가능성 즉, 카오스적 리듬, 카오스적 템포가 내포되어 있다'고 프로그램 노트에서 진술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⁴⁾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졌고, a부터 s까지 작게 19부분으로 구성된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a부터 g까지의 분석을 통해 작곡가가 말하는 '시간'의 의미를 찾아본다. 부분 I에 사용된 음악적 단편은 세 개다(악보 6). 이 음악적 단편은 작은 부분 a의 첫 번째 마디에서 모두 제시된다. 첫 번째 마디에서 각 악기가 연주한 음형은 부분 a에서 반복과 변화를 수반한다(악보 7). 악보 예에서 제시된 음을 중심으로 한 변화 외에도 32분음표를 단위로 한 박자 23/32 → 33/32 → 30/32 → 15/32 → 23/16으로의 변화는 이 곡이 최소의 음악적 동기, 최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음악요소이다. 또한 도돌이표에 의한 제한된 반복 또한 '지속적인 반복'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음악과는 차별화된 음악적 현상을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악보 6) <3중주> '...선들은 시간 속을 방황 한다...' 마디 1

(악보 7) <3중주> '...선들은 시간 속을 방황 한다...' a 부분의 기본 음형에 대한 변화

악보 7에서 보듯이, 마디 1에서 제시된 기본음형은 화음을 선율로, 선율을 화음으로, 선율의

역행형 등을 통해 변화하고 나아가 한 옥타브 낮추면서 음색변화까지 담고 있다.

마디 1에서 제시된 기본음형은 부분 a를 넘어 부분 I 전체를 구성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악보 예 8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악보 8) <3중주> '...선들은 시간 속을 방황 한다...'

부분 a의 기본음형과 부분 b, c, d, e, f 그리고 g의 유기적 관계

이 글에서 <3중주> '...선들은 시간 속을 방황 한다...' 전체의 분석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분 I을 이루는 각 부분을 시작하는 음형들만을 제시하면서 부분 a의 기본음형과의 관계를 제시한 악보 8은 이 작품이 분명 미니멀 음악이라는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적 결론은 연주회에서 리뷰를 써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서둘러 결론지었던

'이 작품은 모더니즘 사고의 연장이라는 음악적 인상을 준다' 는 사실을 무참하게 만든다. 그렇게 만든 요인은 이 작품에 담긴 기본음형에 대한 다양한 변화, 두 번 이상을 넘지 않는 음형 반복의 제한,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 리듬의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작품과 첫 번째 작곡가의 작품이 동일하게 단순한 주제와 신조성적이라 할 수 있는 중심음의 제시에 기초하고 있지만, 첫 번째 작품과는 다른 음악적 인상을 주는 요소들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미니멀음악이라 규정할 수 있는 특징 외에도 음색작곡,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부분 e와 f에서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성부에서 보여준 한음을 지속하며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론 '음색클러스터'⁵⁾, 부분 a에서 기본음형으로 피아노 파트 오른손에서 제시된 음클러스터 그리고 음역의 변화를 통한 음색작곡기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에서 이흥석 작곡가는 '규칙적인 듯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리듬의 불가능성 즉, 카오스적 리듬, 카오스적 템포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을 듣고 악보로 분석한 결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현상들' 을 설명하는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으로 설명되는 작품이라 말하고 싶다.

1) 김광우 저음, 『워홀과 친구들』, 미술문화 1997, p. 118.

2) 고트프리트 벤(Gottfried Benn, 1886-1956):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피부병과 성병을 담당 하던 병리학자, 의사이자 히틀러시대 이후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그리고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유명한 표현주의 시인. 1912년 전위적인 처녀시집 《시체공시소》(Morgue)를 발표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킴. 그는 표현주의 염세론과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의 문학세계는 신화와 원초적 세계에 있어서의 자아의 상실과 도취, 죽음, 혐오, 부패 등도 그의 문학적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3) '시간'이라는 주제에 작곡가 이흥석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은 그의 다른 작품들의 제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004년 재발 바이올리니스트 강혜선이 독주회에서 연주했고 2006-2007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가운데 '건축과 조형물'이라는 부제를 가진 첫날 연주회(2006년 9월 13일)에서 다시 연주된 《시간 속의 시간》(the time in time, time in the time), 21세기악회가 주최한 국제음악제 MUSIC TODAY, SEOUL 2005(2005년 3월 18일)에서 독일의 앙상블 크로노포니가 연주한 《노래》, TIMF앙상블 '한국작곡가의 밤'(2005. 12. 28 영산아트홀에서 연주된 다섯 개의 악기를 위한 《거울속의 시간》(The Time in Mirror, 2005) 그리고 2008년 5월에 있었던 개인 작곡발표회의 제목 《詩와 時에 불어는 나》 등은 작곡가가 '시간'이라는 주제가 작곡가의 음악적 사고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4) 연주 시간이 길었던 큰 구성의 작품이기에 본 글에서의 분석은 부분 f에 속해있는 a부터 g까지로 한정한다.

5) 신인선, "최리지 리게티 작품에서의 클러스터기법의 발전", 『음악이론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1999(제4호), p. 197.

Guest Composer's Week

박영희



▶ Profile

박영희 | Composer

194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청주에서 출생하여 1965년에서 1971년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수학하였고, 1974년 DAAD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했다. 독일에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모두 한국의 전통 음악에 굳건히 뿌리내린 것이었다. 그는 황병기와 오태석을 그에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두 인물로 꼽는다. 황병기는 한국 전통 음악의 전문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고 오태석은 한국 연극의 개혁자이자 근대 극작가이다. 그는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에서 Klaus Huber(작곡), Brian Ferneyhough(음악분석), Peter Föritg(음악 이론), Edith Picht-Axelfeld(피아노)에게 배웠고 1979년 졸업했다. 1980년에서 1981년 사이 남서독일방송(SWR)의 하인리히 슈트로벨 재단(Heinrich Strobel Foundation)으로부터, 그리고 1985년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예술 재단으로부터도 장학금을 받았다.

오케스트라 작품 (Sori)를 통해 1980년 도나우에싱엔 페스티벌에서 일등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1987년에는 (Nim)으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7년에는 (In luce ambulemus)로 동일한 페스티벌에서 일등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활동 초기에서부터 국제적인 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1978년 스위스의 Boswil에서 열린 제5회 작곡가 세미나(5th Composers Seminar)에서 1등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주최로 파리에서 열린 행사(the Rostrum of Composers)에서 1등상, 한국의 난파음악제와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작곡 경연대회에서도 1등상을 수상하였다. 1995년에는 여성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하이델베르크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은 명성 있는 모든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서 연주되어왔고 그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번의 음악회들도 개최되었다. 그의 다른 중요한 초연작들은 다음과 같다. 괴테의 해를 기념하여 위촉되었고 앙상블 Phorminx에 의해 연주된 (Bi-Yu)(1999), Expo 2000을 맞아 위촉된 (Io), 2001년 열린 제18회 베를린 음악 비엔날레를 위해 위촉된 (Dorthis, wo der Himmel endet), 2005년 벨기에의 브뤼셀 음악 예술 페스티벌(Brussels Ars Musica Festival)에서 앙상을 Recherche에 의해 연주된 (Wundgeträumt)의 첫 버전이 있다. 2002년과 2005년 사이에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Oedipus at Colonus)를 바탕으로 여기에 한병철의 텍스트를 추가하여 만든 음악극 (Mondschatten)을 완성했으며 이는 2006년 슈트트가르트에서 초연되었다.

1991년 그라츠(Graz) 음악원과 1992/1993년 칼스루에(Karlsruhe) 음악원의 초빙 교수직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브레멘 음대의 작곡과 교수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Atelier Neue Musik 연구소를 창설했고 지금껏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가 받은 다른 상들은 그의 고국인 한국에서 받은 것으로 서울대

학교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 (2006), 대한민국 국민훈장(2006), 제15회 KBS 해외동포상 (문화예술 상부문)이 있다. 2009년 그는 베를린의 예술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 박영희의 작품세계

박영희의 작품을 특징짓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표현의 인상적인 통일성으로, 이는 그의 작품이 한국의 음악전통에 본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구 아방가르드의 기술적인 도구들이 작품의 중핵이 아닌 외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소외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그 자신만의 것을 찾는 것과 더불어 고국의 역사 안에서 세계 상황에 반영된 거울을 인식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것이다. 그는 도처에 퍼져 있으면서 개인을 넘어서 있는 상업화와 식민지적 잔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위한 음악적 이미지를 찾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애도하는 이미지와 동시에 화해와 유토피아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진술들은 박영희의 예술적인 발전의 지취를 따라간다. 곧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정서적이고 미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실행한, 자신을 위한 노력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재확인에 뒤이어 드러난 국면들에 대한 차별화로서의 자취이다.

가장 초기의 작품들(〈Pa-Mun〉, 〈Dreisam-Nore〉, 〈Man-Nam I〉)에서 시작하면서 〈Nun〉과 〈Sori〉에서 정점에 달하는 그의 첫 시기는 - 작곡가의 예술적인 언어가 이미 그 주요한 특징로 확립된 시기인데 - 〈No-UL〉, 〈Nim〉, 〈Hwang-To〉와 같이 정치적으로 극도로 표현적인 작품들에서 마무리된다. 1987년까지 지속되는 그의 탐색기에 드러나는 중요한 작곡상의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가수가 타악기 연주를 동반하는 서사적인 판소리 모델이 성악 음악으로 전이되는 것, 음향과 화성적인 공간이 '모화음' (mother chords)을 통해 구조화되는 것, 선택된 화음의 음표들의 순열로부터 나오는 유동적인 균형 상태, 테레포노적인 대위법으로서의 다성 음악, 그리고 정확한 음고가 없는 '소음들'을 통합하는 음향 개념의 확장이 이러한 기법들에 속하는 것들이다.

지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존재지향적인 가치들이 오랜 기간 동안(1987/88년부터 1999년까지)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는 국면들로서 예술적으로 추구되었는데, 이는 님, 마음, 겹섬, 삶, 물, 정신, 소망과 의식과 같은 개념들로 나타났다. 이는 〈Ta-Ryong〉 시리즈와 같은 작품들에서 공격적으로 옹호되는 민속적인 음악의 정체성을 지닌 작품들로 귀결되었는데, 〈Ta-Ryong〉은 H. C. Artmann의 시 〈나의 마음〉(Mein Herz)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작품으로 (역시 Rose Ausländer, Anna Akhmatova, Louise Labé의 시에 바탕을 두고 있는 "Sowon / Wunsch"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의 그룹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맥락의 바깥에 위치하기도 하는 개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1999년에 작곡된 〈Io〉는 그의 두 번째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데, 도교적 윤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작곡가는 자신의 시선을 승명론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에서 돌리게 된다. 하지만 그 지속적인 명징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페라 〈Mondschatten〉은 이 대화적인 만남의 정점을 형성한다. 무자비할 만큼 원형적인 [신화의] 사건들은 음악 텍스트의 엄격함에서 적절한 대응물을 찾게 되었다.

그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은 2007년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악기를 위한 작품을 통해 그녀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다른 한편으로는 도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대화에 대한 집중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영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는 이 세계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며 오히려 그 숨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고통을 보다 더 잘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보다 나은 위로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Lecture

〈박영희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동·서양 문화와 종교적 영성에 관하여〉

오늘날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 문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작곡경향들에서 우리의 고유한 음악성을 어떻게 고수해갈 수 있을것 그 가능성에 대하여 박영희의 〈비유 (1999)〉 〈테너솔로와 관현악을 위한 "빛 속에서 살아가며" (2007)〉 〈무반주 합창곡을 위한 "주님,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2009)〉의 작품들에 비추어 그 방향성을 재조명 해 보고자 한다.

in memoriam Thomas Yang-Eop CHOE

< In luce ambulemus / Im Lichte wollen wir wandeln >
für Tenor-Solo und kleines Orchester

auf lateinische Texte aus den Briefen des zweiten koreanischen Priesters Yang-Eop CHOE

(제 2 Johannes 1,9)

빛 속에서 살아가며 (1999, 1,7)

Youngji Pagh-Pann (2007)

© Copyright 2007 by G. Ricordi & Co.
Bären- und Musikverlag GmbH
München

Sy. 3722

Alle Rechte vorbehalten
All rights reserved
Tutti / G. Ricordi & Co.

5월 3일(월)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49동 Lecture
5월 4일(화)/6일(목)/7일(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mposition Lesson

Performer's Studio I

E-Mex Ensemble



Evelin Degen | Flute

Joachim Striepens | Clarinet

Christine Rox | Violin

Burkart Zeller | Cello

Martin von der Heydt | Piano

《E-Mex 앙상블》은 1999년 독일 쾰른과 루르 지역 출신의 6명의 젊은 음악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곧 현대음악 영역에서 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앙상블은 젊은 세대에 속하는 가장 흥미로운 작곡가들과 협력하면서 이들의 현대 음악 작품들을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되었는데 이들 작곡가들로는 Sven-Ingo Koch, Elena Mendoza-López, Valerio Sannicandro, Gordon Kampe, Vassos Nicolaou, Christoph Maria Wagnr, Jörg Birkenkötter, Karin Haußmann, Carola Bauckholt가 있다. 현재 앙상블이 연주해온 레파토리는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2백여 곡이 넘는 작품을 아우르며 여기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현대음악 작곡가들 카터(Carter), 크세나키스(Xenakis), 도나토니(Donatoni), 그리제이(Gresey), 호소카와(Hosokawa), 사리노(Sciarrino), 락헨만(Lachenman)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E-Mex 앙상블》은 자체적으로 콘서트 시리즈를 열어왔으며 많은 세계 초연 곡들을 받았고 유럽과 일본,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연주회들과 음악 페스티벌에서 연주해왔다. 이러한 행사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E. Mendoza-López와 함께 했던 《소리의 이야기들》(Stories of Sound), V. Sannicandro와 이탈리아 문화원Istituto Italiano di Cultura와 함께 했던 《독일-미국 해의 프로

젝트》(German-American project Overseas), 그리고 《E-Mex 트리오》(클라리넷, 첼로, 피아노)가 참가했던 《국제 음악회 시리즈》들을 꼽을 수 있다.

현재 《E-Mex 앙상블》은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트롬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아코디온, 타악기, 피아노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휘자들과 성악가들, 그리고 여러 기악 연주자들이 앙상블과 함께 연주한다.

앞서 언급한 젊은 작곡가들(Sven-Ingo Koch, Elena Mendoza-López, Valerio Sannicandro, Vassos Nicolaou, Yasuko Yamaguchi, Gordon Kampe)은 특별히 《E-Mex 앙상블》을 위한 작품을 작곡해주었다. 최근의 중요한 프로젝트들로는 쾰른 독일방송국(Deutschlandfunk Cologne)과 함께 진행한 CD 녹음작업인 《Valerio Sannicandro: chamber music》(2006년 텔로스 레이블로 발매), 《E-Mex 트리오》의 일본 순회 연주, 2007년 있었던 독일 도르트문트에서의 연주회 시리즈와 남서독일방송국(SWD), 서독일방송국(WDR), 그리고 쾰른 독일방송국과 같은 독일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참여한 방송이 있었다. 2010년에는 중국과 남아메리카의 연주 일정이 잡혀 있으며, 2011년에는 Gordon Kampe, Sven-Ingo Koch, Yasuko Yamaguchi, Juan-Allende-Blin의 작품 연주를 담은 3장의 CD가 발매될 예정이다.

Lecture Concert

《New Sounds, New Techniques, New Possibilities of Composition》

Salvatore Sciarrino

《Come vengono prodotti gli incantesimi》(1985)

Helmut Lachenmann

《Pression》(1969)

Carola Bauckholt

《Clarinet Trio》(1992)

Program

5월 18일(화)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55동 203호 Lecture Concert

Performer's Studio II

MD7 Ensemble



Matej Zupan | Flute
Jože Kotar | Clarinet
Igor Mitrović | Cello
Katja Krajnik | Viola
Luca Ferrini | Piano
Franci Krevh | Percussion
Mihael Šuler | Trombone
Steven Loy | Conductor
Pavel Mihelčič | Music director

류블라나(Ljubljana)를 근거지로 하여 2002년 창단된 이래 〈MD7(Musica Danubiana 7) 앙상블〉은 이들을 위해 작곡된 새로운 작품들의 연주를 통해 활동 기반을 넓혀 왔다. 독특한 조합의 악기들로 구성된 7중주 앙상블은 전 세계의 작곡가들로부터 위촉하여 초연한 60곡의 새로운 작품들을 반복하여 연주해왔다. 창단 이후 여러차례 연주 초청을 받아 비엔나, 트리에스트, 부카레스트, 인스부르크, 더블린, 류블라나의 음악 페스티벌과 음악회에서 연주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MD7 앙상블〉은 음반 작업에도 참여하여 3장의 CD를 그들의 이름으로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2장은 2010년 초에 발매되었다. 창단 이래로 앙상블은 Pavel Mihelčič를 예술 감독으로 두고 활동해왔고 앙상블을 구성하는 7명의 정규 단원들은 모두 높은 기량을 자랑하는 연주자들로 슬로베니아의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주요 단원들이기도 하다.



Matej Zupan | Flute

류블라나 음악원 교수.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트 주자를 역임했다. 유럽과 미주에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5장의 독주 CD 앨범을 내놓았다.



Jože Kotar | Clarinet

2007년 이래로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슬로베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도 10년 동안 수석 주자로 있었다. 류블라나 음악원 정교수로 재직중이며 11장의 음반을 내놓았고 다양한 실내악 단체의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Igor Mitrović | Cello

베이루트 출신으로 류블라나 음악원을 졸업했다. (Miloš Mlejnik 사사) 현재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동 수석 첼리스트로 있으며 독주자 및 다른 여러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단체들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atja Krajnik | Viola

류블라나 음악원에서 Svava Bernhardsdottir에게 사사하였고 졸업 후 독일 데트몰트 음대에 입학하여 Nobuko Imai에게 배웠다. 2000년부터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비올리스트로 있으면서 독주자로서뿐 아니라 Rož marinke 현악4중주단과 같은 실내악 그룹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Luca Ferrini | Piano

고국 이탈리아에서 피아노와 하프시코드, 오르간을 배웠고 2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도시들에서 세 악기에 대한 독주자로서 연주했을 뿐 아니라 여러 실내악단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활동했다. 피아노와 하프시코드에 관해 초청 강사로서 여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작곡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Performer's Studio



Franci Krevh | Percussion

류블라나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슬로베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D7 앙상블, KOS DSS 챔버 오케스트라, SToP 타악기 앙상블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의 연주에 참여하고 있다.



Mihael Šuler | Trombone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를 졸업했으며 재학중 유명한 트롬본주자인 Branimir Stokar에게서 배웠다. 이후 베른 음악/공연학교(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re)에서 수학했다. 현재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트롬본 공동 수석주자로 있다.



Steven Loy | Conductor

류블라나에서 프리랜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Péter Eötvös, Jorma Panula, Helmuth Rilling을 포함한 여러 지휘자들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했다. 2002년 시에나의 Accademia Musicale Chigiana에 입학했다.



Pavel Mihelčič | Music director

1937년 생으로 작곡가이며 음악 평론가이자 교사이다. Unicum 현대 음악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이며 그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직책들 중에서도 특히 오랫동안 국제 현대음악 협회(ISCM: International Society of Contemporary Music)의 슬로베니아 지부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작곡가로서 다양한 앙상블 작

품을 내놓은바 있는 그의 음악의 특징은 명징함과 음악적 확신이며 많은 그의 작품들이 민요 모티브를 소재로 삼고 있다.

Lecture Concert

〈Four Perspectives of Seven Musicians〉

Nenad Firšt

〈Violab〉

Sukhi Kang

〈Myth II〉

Pavel Mihelčič

〈Prameni(Beams) for clarinet and ensemble〉

Lojze Lebič

〈Barvni krog (Color Circle)〉

Program

5월 27일(목)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49동 Lecture Concert

2010 Summer Academy

With SNU Composers

Guest Composer



Zack Browning | Composer

잭 브라우닝의 음악은 The Atlanta Journal Constitution으로부터 "way-cool in attitude" "speed-demon music"이라는 평을 받았다. The Irish Times는 그가 예술 음악의 절차들과 대중 문화의 취향을 결합하고 있다고 평한다. 브라우닝의 CD "Banjaxed" (Capstone Records)는 성악과 악기, 그리고 컴퓨터 사운드를 위한 그의 독창적인 작품 8곡을 담고 있으며 "극적이고 흥미진진하며 리드미컬하면서 활기 넘치는 음악"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는 Illinois Arts Council Composer Fellowship,

Chamber Music America Commission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작품 〈In Time〉으로 the Arts Midwest Composers Competition에서 1등상을 받았으며 International New Music Composers Competition에서 Honorable Mention을 받았다. 또한 그의 〈Quintet for Winds〉는 Politis Competition Prize의 최종심사곡에 올랐으며 다른 작품인 〈Impact Addiction〉은 Auros Group for Contemporary Music Composition Competition의 Honorable Mention을 받았다. 그는 또한 그의 실험적인 컴퓨터 작곡을 이용한 작품으로 일리노이 대학의 Arnold O. Beckman Research Award를 두 차례나 받았고 중국에서 있을 그의 작품 연주와 강의를 위해 최근 FAA Fellowship을 받았다.

브라우닝은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했고 Atlanta New Music Ensemble의 공동 디렉터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플로리다 주립 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작곡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곳에서 Krzysztof Penderecki와 John Boda에게 배웠다.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브라우닝의 스승으로는 Benjamin Johnston, Salvatore Martirano, Paul Zonn이 있다. 그는 1983년부터 일리노이 대학에서 작곡 및 이론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Original Series of Experimental Music Compositions by Zack Browning〉

1995년 이래로 연주자들과 컴퓨터 음향을 위한 작품들이 작곡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은 마방진(magic square)을 작곡 모델로 사용하는 일련의 실험적인 음악 작곡과 관련이 있었다. 알고리즘 작곡에 대한 그의 연구는 마방진을 음악 형식에 구조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GACSS(Generic Algorithms in Composition and Sound Synthesis, 작곡 및 음향 종합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로 만든 컴퓨터 음향에 악기의 음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음색상의 가능성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마방진은 각각의 행과 열의 합, 그리고 대각선상에 놓인 일련의 숫자들의 합이 언제나 동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방진 위의 숫자 열들은, 마방진의 특징을 작곡의 모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음악적인 구조로 사상(寫像, mapping)된다. 마방진 위의 각 숫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는 특별한 양식, 리듬, 밀도, 음색,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에 따라 악보에 나열된다. 마방진에 적용될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7이라는 숫자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우주에 등장하는 7개의 행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그리고 달) 이러한 "행성 마방진"은 르네상스 시기의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던 아그리파(Heinrich Cornelius Agrippa von Nettesheim)가 1531년 펴낸 마법에 관한 저서인 De occulta philosophia에 등장한다.

GACSS는 C/C++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음향 발생과 작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유전 알고리즘(GA,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연 유전자들의 작용(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검사 절차(a search procedure)라고 할 수 있으며 음향 종합(sound synthesis)과 작곡상의 매개변수(compositional parameters)를 위한 통계 구조로 기능한다. 음향 발생 알고리즘(sound generation algorithms), 혹은 파형 종합 절차(WSP, Waveform Synthesis Procedures)는 일종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어쿠스틱 파형의 시각적인 표상에 근거한 방식으로 주기를 만들어내는 절차를 제공한다. 최종 산물은 어쿠스틱 음향의 재생산이 아니며 (이는 결코 의도된 바도 아니었다), 오히려 어쿠스틱 파형의 복잡함을 고려하면서 음향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열린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Performers



벤자민 성(Benjamin Sung) |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Benjamin Sung은 이스트만 음대에서 학사 학위, 그리고 인디애나 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Eastman School's Starling Prize, Cynthia Woods Concerto 콩쿨 1위, Montgomery Symphony Fellowship 콩쿨 1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브라질의 Virtuosi X와 Festival Inverno de Garahuns에 초청되어 다수의 협연 및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고 있고,

Carnegie Hall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주최 Adams Project에 Solo Violinist, Lucerne Academy Festival Orchestra의 부수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Trondheim Symphony of the Guest Concertmaster로도 활동하였다. 독주자로서는 National Repertory Orchestra, Texas Music Festival Orchestra, Solistas do Virtuosi of Festival Internacional de Musicain Recife, Houston of the Clear Lake Symphony 등과 협연하였고, 덴마크의 Royal Danish Conservatory 및 미국의 Auburn University, St. John's University 등 유수의 음대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다.

현재 Fargo Moorhead Symphony의 수석 연주자 및 Arsenal Trio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Cheryl Nelson Lossett Performing Arts Series의 예술 감독으로서 다양한 공연의 기획을 맡고 있다. 또한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와 Minnesota State University Moorhead의 Faculty member로 재직 중이다.



김연수(Yeon-Su Kim) |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수는 길드홀 음악원(the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과 런던의 왕립음악원(the Royal Academy of Music in London),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에서 수학했고 데이빗 타케노(David Takeno), 쇼코 아키(Syoko Aki), 사이먼 피셔(Simon Fischer), 유리 마주르케비치(Yuri Mazurkevich)에게서 배웠다. 영국의 쉰머링 경연대회(Semmering competition) 및 영국 왕립음악원의 레버홀름 펠로십(Leverhulme Fellowship) 등 여러 경연대회와 펠로십을 수상했다.

코스모스 사중주단(the Cosmos Quartet)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에서 연주했고 아마데우스 사중주단, 보로딘 사중주단, 도쿄 사중주단의 상주 연주자(in residence)로도 활동했다. 독주자와 실내악주자로서 그는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미국의 여러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고 가르쳤다.

에즈라 라더만(Ezra Laderman), 에릭 소어(Eric Sawyer)와 같은 작곡가들뿐 아니라 the Composers in Red Sneakers 소속 작곡가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작품을 위촉하였고 이를 통해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곡들과 바이올린과 마림바를 위한 듀오 곡들을 연주했다. 다가오는 시즌에 그는 이 작품들을 제네바와 서울, 마이애미에서 연주할 예정이며 에즈라 라더만의 독주 바이올린 작품인 (Portraits II)의 초연 실황 연주는 해리스부르크 라디오(Harrisburg Public Radio)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김연수는 메사추세츠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서 방문교수로 가르쳤으며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앰허스트 대학(Amherst College)에서도 가르쳤다. 현재 게티스버그 대학(Gettysburg College, Sunderman Conservatory of Music)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사중주단과 삼중주단(Sunderman Quartet, Sunderman Trio)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장지혜(Jihye Chang) | Piano

피아니스트 장지혜는 서울음대 기악과를 수석 입학, 최우등 졸업한 후 도미하여 인디애나 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찍이 삼익 콩쿨 금상 및 조선일보콩쿨에서 입상하였고, Tanglewood Music Center가 수여하는 Henry Kohn Award와 Montgomery Symphony of the Honorary Fellowship, Yvar Mikhashoff 재단의 Pianist-Composer Commissioning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독주자로서는 원주 시향, Indiana University New Music Ensemble, Montgomery Symphony Orchestra, Hot Springs Chamber Orchestra, 선화 오케스트라, Moorhead University Symphony Orchestra와 협연하였고, Auburn University, Jamestown College 등 미국 다수의 음악대학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는 뉴욕, 런던을 비롯하여 코스타리카 (Costa Rica), 온두라스(Honduras) 등지에서 연주를 가졌고, Banff Music Centre 및 Tanglewood Music Center, Sarasota Festival 등의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 음악 연주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디애나 대학교, 루이빌 대학교, 볼 주립 대학교 등 다수의 음대에서 20-21세기 작곡가들의 피아노 연습곡 및 소품들에 관한 다수의 연주와 강의를 해왔다. 미국 Centaur Label 및 University of Louisville Label을 통해 세상의 음반을 녹음 및 발매하였고, 국내에서는 Sony/BMG Korea와 서울 레코드를 통해 "듣기 좋은 피아노" 음반 및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반을 내놓았다. 현재 Concordia College와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의 faculty member로 재직 중이며, Chamber Music ff 시리즈의 음악감독 및 Arsenal Trio 단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Red Sneakers 소속 작곡가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작품을 위촉하였고 이를 통해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곡들과 바이올린과 마림바를 위한 듀오 곡들을 연주했다. 다가오는 시즌에 그는 이 작품들을 제네바와 서울, 마이애미에서 연주할 예정이며 에즈라 라더만의 독주 바이올린 작품인 (Portraits II)의 초연 실황 연주는 해리스부르크 라디오(Harrisburg Public Radio)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정경빈 | Viola

- 선화예술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 Seoul Youth Philharmonic Orchester 단원 역임
- 해외파견 음협콩쿨 2위(2008)
- 한양 현대음악 페스티벌 협연(2009)
- 한양 체임버 오케스트라 협연(2009)
- 스튜디오 2021 Klaus Huber 내한 연주(2008)
- 통영 국제 음악제 '앙상블 부문' Best performance awards(2008)
- 현, TIMF 앙상블 준단원
- 서울시립 교향악단 객원 단원
- 국방부(M.N.D) 오케스트라 감사
- 현대음악 앙상블 Nuovo Quartet Violist
- 사사 : 박현진, 위천주, Hungwei Hwang



김근혜 | Cello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 대구방송(TBC) 음악콩쿨 전체대상 (문화부 장관상)
- 서울 내셔널 콩쿨 실내악 부문 1등
- 바르코 음악콩쿨 / 한양대학교 음악콩쿨 1등
- 부산 음악콩쿨 / 국민일보 한세대 음악콩쿨 2등
- 조영창 첼로 앙상블 / 부산시향 / 부산 신포니에타 / 대구필 / 한양대학교 체임버 오케스트라 / 포항공대 초청 음악제 협연
- 젊은이의 음악제 출연
- 음악춘추 Young concert
- 통영 국제음악제(TIMF) 아카데미 출연
- 한양현대음악 페스티벌 실내악 연주
- 현,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4학년 재학중
- 사사 : 박경옥

SNU Composers



강경목 (b.1987) <Chameleon> for guitar and string quartet

기타와 바이올린족의 악기들은 같은 현악기군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발현악기와 활현악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 대의 기타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곡을 쓰게 되면 기타가 연주기법이나 음색의 차이로 바이올린족과 구분되기 때문에 Concerto의 양식을 유념하며 작곡 하였다. 곡 제목 <Chameleon>이 의미하는 것은 색깔변화, 즉 음색변화이고 그것이 이곡의 주요 전개 방법이자 작곡 방법이다. 바이올린족은 구조와 모양이 같고 크기에 따라 음역만 달라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 악기에 가깝다. 그렇기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반면 연주 기법의 활용으로 다양한 소리 또한 낼 수 있다. 이 다양한 소리가 음색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바로 <Chameleon>의 모습이다.

The score for 'Chameleon' is written for guitar and string quartet. It features complex rhythmic patterns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ppp*, *f*, and *sfz*. The guitar part is prominent, often playing in the upper register, while the string quartet provides a rich harmonic foundation. The score includes various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Latter vln. suddenly damp (resonant)' and 'Sub-pizzicato (resonant)'.



박현상 (b.1987) <Fantasie> für Violoncelli und Klavier

이 곡은 낭만주의 양식에 근거한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으로 극단적인 불협화를 지양하고 조성의 틀 안에서 단순한 화성과 선율을 이용하여 곡을 전개시켰다. 또한 낭만주의 이전의 고전 레퍼토리에서 학습한 두 악기 간의 관계 설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수 주법의 사용을 배제하고 고전적인 연주법에서 끌어 낼 수 있는

여러 표현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The score for 'Siegreich und ekstatisch' is written for piano and string quartet. It features a driving piano melody with complex rhythmic patterns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ppp*, *f*, and *sfz*. The string quartet provides a rich harmonic foundation. The score includes various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Latter vln. suddenly damp (resonant)' and 'Sub-pizzicato (resonant)'.

This section continues the musical score for 'Siegreich und ekstatisch', showing further development of the piano and string quartet parts. It includes dynamic markings like *ppp*, *f*, and *sfz*,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such as 'Latter vln. suddenly damp (resonant)' and 'Sub-pizzicato (resonant)'.



박형준 (b.1988) <M.U.A.M.> for string quar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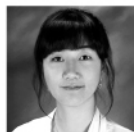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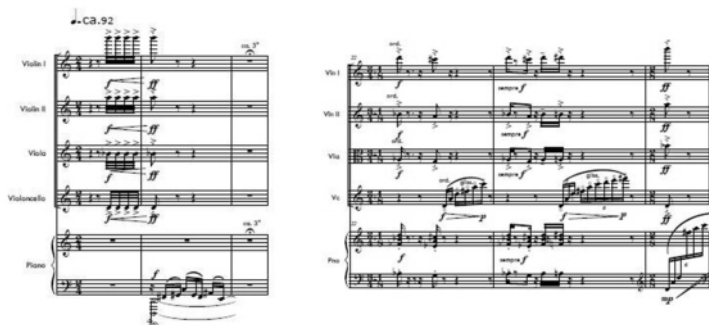
이미 일상적인 주법이 되어버린 하모닉스를 주 소재로 하여 투명한 음색적 환경을 구성해 보고자 했다. 가능한 한 제스처들을 줄이고 음의 강도와 지속 시간, 악기가 서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게 혹은 크게,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The score for 'M.U.A.M.' is written for string quartet. I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ppp*, *f*, and *sfz*. The score includes various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Latter vln. suddenly damp (resonant)' and 'Sub-pizzicato (resonant)'.



방한솔 (b.1990) <Kaleidoscope> for piano quintet

2개의 Dominant 7th chord를 통해 음소재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5음을 제외했을 때 만들어지는 whole-tone scale과 french 6th chord 등, 음소재의 확장을 생각했다. 또한 여러 가지 중첩과 병치를 통해 작품전체 구조 (structure)의 흥미를 꾀하였다.



신은지 (b.1988) <Shadow> for string quartet and piano

그림자는 분명한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유출된 것이되 빛의 위치와 세기, 그리고 그림자 지는 곳의 상태에 따라 원형으로부터 이탈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왜곡된 다양한 이미지라는 그림자 현상은 이 작품에서 음악적 구성 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구현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이용석 (b.1989) <Spectra> for string quartet

Bach 평균율 1권의 1번 프렐류드에서 추출한 화성진행에 7도 음정을 기반으로 한 화성을 일종의 기능과 지향성에 맞추어 배열하여 일련의 새로운 화성모형을 만들었고, 그것에 그것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음형들을 입혀보았다.



이치훈 (b.1987) <An Oriental> for piano quintet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적인 분위기의 음색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여러 가지 음악적 소재들(음고, 음역, 주법, 리듬 등)을 제한하여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여러 기법들로 다양하게 써보았다. 제한된 다섯 음 G^b, G, A^b, A, B^b를 가지고 음역을 제한하고 전위(inversion)하는 등 여러 기법들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음역을 축소, 확대 하고 음들을 확장시키며 설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중심 음 A^b으로 회귀하도록 하였다.





정연호 (b.1989) 〈Quartetto〉 per archi

"C-C#-E-Eb"라는 동기(motive)를 가지고, 미분음 등을 통한 다양한 음색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음정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화음들을 만들어 중간 중간 삽입시켰다.

Chris Paul Harman

〈Piano Trio〉 (2004-5) (한국초연)

Luciano Berio

〈Selections〉 from Duets for 2 Violins (1973-1983)

Zack Browning

〈Sole Injection〉

for amplified violin and computer generated sounds

(1996) (한국초연)

Ezra Laderman

〈Portraits II〉 for violin solo (2007)

- Intermission -

Garrett Byrnes

〈Cosmopolitan Etudes in sevenths〉 (2009) (세계 초연)

Magnus Lindberg

〈Etude No. 1〉 (2001)

학생 선정 작품 2곡

Magnus Lindberg

〈Piano Quintet〉 (1981)

2010년 스튜디오2021 여름아카데미 콘서트 프로그램은 독주 바이올린에서부터 피아노 오중주까지 다양한 악기편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바로크 음악의 영향에서부터 컴퓨터 음악에 이르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1980년대에서부터 2009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과 작곡법, 아울러 악기 활용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기교, 때로는 매우 현란한 기교까지 포함하는 등 현대 음악의 다각적인 단면들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Lecture | Zack Browning

〈음악과 수 (Music and Numbers)〉

제임스 브라운, 필 콜린스, 에미넴,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글로드 드뷔시, 그리고 잭 브라우닝에 의해 황금분할비율과 중국의 마방진, 풍수(風水, feng shui)와 같은 것들이 음악에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예를 통해 음악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강의를 브라우닝의 작품의 여러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인데, 여기에는 태양 마방진(the Magic Square of the Sun)을 바탕으로 작곡된 〈플루트와 컴퓨터 음향을 위한 'Network Slammer'〉, 독일 화가 뒤러(Dürer)의 마방진을 근거로 한 〈Excution 88〉, 그리고 풍수에서 8번째 기간에 등장하는 로슈 마방진 (Lo Shu (洛書) Square, 곧 3'3 마방진)을 근거로 한 〈현악 사중주〉가 포함된다.

String Quartet

Zack Browning

$\text{♩} = 104$: a distant and delicate groove

expressive

ap *pp* *p* *ap* *pp* *p* *ap* *pp*

$\text{♩} = 116$: a more pronounced groove

expressive *slight ritard*

ap *pp* *p* *ap* *pp* *p* *ap* *pp*

© 2008 by Zack Browning

- 1 -

Aggressive Excitement!

Sing it! Punch it!

ff *ff* *ff* *ff* *ff* *ff* *ff* *f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ap* *nf*

- 28 -

6월 16일(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mposition Lesson

6월 17일(목)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55동 203호 Lecture

Friends of Studio 2021

Studio 2021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Studio 2021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와 음악회 소식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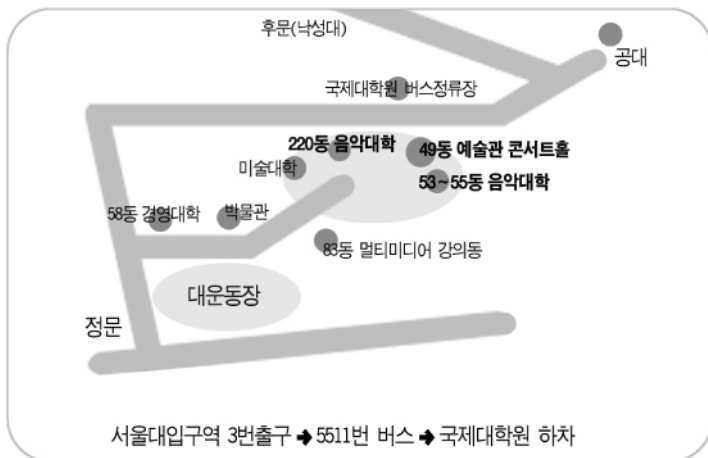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문의: 서울대학교 작곡과 Tel. 02) 880-7944
작성해 주신 정보는 공연 당일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tudio 202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시는 길





SNU New Music Series | Studio 2021

| 발행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 음악감독 이신우 | 편집 이가영 | 번역 신상호 | 발행일 2010년 4월
| 문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사무실 Tel.(02) 880-7944 Fax.(02) 878-7064 | 웹페이지 www.studio2021.net